

김종삼 시에 나타난 ‘술’의 특징 연구

손민달*

|| 차례 ||

- I. 서론
- II. 비극적 정서의 심화
- III. 교유(交遊)의 매개물
- IV. 환상적 공간으로의 이동
- 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종삼의 시에 나타난 ‘술’의 특징과 그것이 가지는 미학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김종삼의 시에서 ‘술’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그의 시에 나타난 ‘술’은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비극성을 강화시켰다. 둘째, 그의 시에 나타난 ‘술’은 동일시되는 타인과 교유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그는 ‘술’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부조화를 극복하려하지만 이에 실패하고 ‘술’을 통해 화해의 공간을 꿈꾼다. 셋째, 김종삼의 시에 나타난 ‘술’은 비극적 현실을 내면화하고 이를 타개할 방편의 하나로 제시된다. 이 때 ‘술’은 단순히 현실을 벗어나려는 순간적인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문제적 현실을 벗어나 환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표현양식이 된다.

그의 시 속의 파편화된 현실은 ‘술’을 통해 오히려 비극화되었고 동일시된 타인과 교유하며 환상의 세계에서 원형의 복원을 꿈꾸게 되었다.

주제어 : 김종삼, 술, 자아, 세계, 비극성, 조화, 환상, 현실

* 우송대학교 글로벌뉴얼디그리학부 초빙교수

I. 서론

김종삼(金宗三, 1921~1984)은 1953년 『신세계』에 시 <원정>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30여 년 동안 200여 편¹⁾의 시를 남긴 과작의 시인이었다. 그러나 황동규의 말대로 “우리의 현대시가 낳은 가장 완전도 높은 순수시인”²⁾으로 남았다. 그의 시는 형태와 기법적 측면에서 절제된 언어 미학과 자유 연상에 의한 이미지의 조형 등 개성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시인의 정서 및 의식의 측면에서는 세계와 자아간의 불화, 비화해라는 비극적 세계인식으로 출발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세계를 형성³⁾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삼의 생애와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음악’과 ‘술’이다. ‘음악’과 관련한 연구는 그의 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음악적 취향과 시의 음악적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⁴⁾ 그러나 그의 전기적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술’과 관련한 시⁵⁾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⁶⁾ 그는 <장

1) 권명옥은 김종삼의 전집을 묶으면서 시 216편, 산문 5편, 가사 4편을 실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역시 이 전집의 작품을 대상으로 했다. 권명옥 편, 『김종삼 전집』, 나남출판, 2005, 13면.

2) 황동규, 『잔상의 미학』,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98, 254면.

3) 허금주, 『김종삼 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1, 1면.

4)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음악에 신들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곡 하나를 며칠 몇 달씩 듣기도 한다. 그에게 ‘인간의 죽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모차르트를 못 듣게 된다고’” 했다. 강석경, 『문명의 배에서 침몰하는 토끼』,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80면.

김종삼 시와 음악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영희, 『김종삼 시의 형식과 음악적 공간 연구』, 『어문론총』제5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강병혁, 『김종삼 시 연구:음악성과 비극성의 관계양상을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논문, 2011.

유애숙, 『김종삼 시 연구:시와 음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5.

노미진, 『김종삼 시의 음악적 상상력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3.

편>에서, 술을 마신 동기는 폐병으로 죽은 동생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다고 한다. 젊었을 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여 길가에서 전봇대를 붙잡고 서 있기도 했었다. 그러나 절제를 하지 못한 그는 마시기 시작하면, 며칠이고 소주만 계속해서 마셨다고 한다.

<술병>이 도지면 눈에 술밖에 보이는 게 없다. 아내는 환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돈은 물론 토크까지 뺏아가지만 그는 무작정 나선다. 동네 가게에서 외상으로라도 술을 마셔야 했다. 그러나 미리 당부를 받은 가게 주인은 가라고 소리친다. 그는 쫓겨나듯 아내의 발길이 미치지 못한 윗동네 가게로 가서 무작정 소주를 따다. <돈은 나중에>라고 말하게 되면 상대방에선 당연히 욕이 튀어 나왔다.⁷⁾

그의 시 <장편>에는 “취르레알리즘의 시를 쓰던/나의 형/宗文은 내가 여러 번 입원하였던 병원에서/심장경색증으로 몇 해 전에 죽었다/(………)/아우는 스물두 살 때 결핵으로 죽었다/나는 그 때부터 술꾼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다. 김종삼은 현실에 부대끼면 안정을 취하려고 술을 마셨다. 그가 쓴 산문에도 “살아가노라면 어디서나 굴욕 따위를 맞볼 때가 있다. 화가 나서 마시고 어찌서 마시고 했지만 한 마디로 절제를 못했다. 일종의 현실도피였다”고 술회했다.⁸⁾

그는 동아방송에서 퇴임하고 난 후 음주과잉에 시달리던 끝에 평소의 지병이던 간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과 형제들

5) 권명옥의 『김종삼 전집』(나남, 2005)을 기준으로 그의 시 216편 중에서 ‘술’과 관련한 작품은 20편이다.

6) 허금주는 물의 이미지를 통해 김종삼 시의 미학적 특성을 밝히면서 “좌절과 몽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술’과 관련된 작품을 분석했다. 허금주, 앞의 논문, 46~52면.

7) 강석경, 『문명의 바다에 침몰하는 토끼』,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88면.

8) 강석경, 앞의 책, 288면.

의 죽음은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김종삼⁹⁾을 술에 의존하는 인간으로 변모시켰다. 그의 전기적 삶 속에서 ‘술’은 중요하게 거론되어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그의 시 속에도 표출되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술’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중국의 경우 앙소문화(기원전 5000~3000년)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술그릇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기물이 있다는 점과 갑골문, 금정문 등에도 술과 연관된 문자가 있다는 점에서 6천 년 이전에 술이 생산되고 있었다고 추정한다.¹⁰⁾ 로마신화에서 주신(酒神) ‘바쿠스’는 술을 처음 만들었다. 이집트 신화에는 오시리스가 사자(死者)의 나라의 왕이 된 뒤 보리로 술을 빚는 법을 최초로 가르쳤다고 하고, 구약성서의 ‘노아의 방주’에는 하느님이 노아에게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제조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¹¹⁾ 이후 인간은 신이 주신 절대 발효 도수인 16도를 넘어서는 인공 제조법을 개발하여 신의 영역에 도전하게 된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인간 소외의 문제적 현실은 인간에게 술에 대한 의존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현재 술 산업은 국가·지방 행정에 절대적인 세수(稅收)가 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9년 현재 한국에서만 18조¹²⁾가 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으로 존재한다.

술과 관련된 문학 연구는 중국문학 쪽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음주시 연구는 윤석우의 논문이 있다.¹³⁾ 그의 연구에서 도연명은 이

9) 이와 관련하여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를 믿었다. 그도 세례를 받았고 14세 때까지 교회에 나갔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야단을 맞지만 미션계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다. 강석경, 『문명의 배에서 침몰하는 토끼』, 장석주 편, 앞의 책, 285면.

10) 최학, 『배갈을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 새로운사람들, 2010, 28면.

11) 김학민, 『태초에 술이 있었네』, 서해문집, 2012, 14면.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8,605,66700만원으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5,639,57800만원 보다 3배가 넘는다. 인터넷 판 『연합뉴스』, <표> 흡연.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2009.7.8.

13) 윤석우, 『음주시에 타나난 중국시인의 정신세계-도연명, 이백, 백거이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2004, 4~7면.

성을 초월하는 비이성적 세계로의 안내자인 ‘술’을 통하여 자연과 나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던 ‘이성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감성적’ 일체를 이루어 낸다고 했다. 이백은 ‘술’을 통해 초월적 세계로 가거나 도(道)와 합일을 이루게 하는 역할도 하는데 그는 도연명과 달리 과장된 주량으로 표현되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주체적 자아를 중시했다. 백거이는 자신의 균형감을 보여주는 달관의 즐거운 음주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는 세 명의 시인을 중심으로 한 음주시 연구를 통해 술은 근심을 없애주는 망우물(忘憂物)의 역할, 자연지도(自然之道)와의 합일을 이끌어내는 매개물의 역할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김종삼의 시와 관련한 ‘술’ 연구는 허금주의 논문¹⁴⁾이 중요하다. 그는 물의 이미지를 대신하는 ‘술’이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전제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 그가 현실적 삶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환상의 세계로 진입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김종삼의 시에서 ‘술’이 어떤 의미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논문이다. 그러나 관련 시를 정리하는 방법이 도식화된 점이 있고 술과 관련된 전체 작품을 조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김종삼 시에 나타난 ‘술’이 그 시에 어떤 특징을 보이고 그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함으로써 시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비극적 정서의 심화

술의 역사를 볼 때 19세기 초 유럽과 미 대륙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음주의 양상을 변화 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이즈음 술의 생산, 저장,

14) 허금주, 앞의 논문.

유통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에 힘입어 성인 한 명당 연간 소비량이 15리터에서 35리터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술 소비량의 증가가 술 제조와 유통 기술 향상보다 산업혁명의 그늘에서 술로 고통을 삭이던 노동자들의 ‘가난과 슬픔’에¹⁵⁾ 기인한다는 점이다.

술을 마시는 근본적 원인은 알코올의 중추신경 마비를 통해 얻게 되는 안정이나 흥분을 얻기 위해서다. 술을 통해 억제조절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부신경계통의 억제에서 해방되어 흥분된 상태로 가기를 원한다. 이럴 때 술은 먼저 기존의 감정을 증폭하는 효과를 낳게 되고 이것이 때로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술은 대체로 슬픈 감정이나 기쁜 감정 상태에서 마시게 되므로 일차적으로 술은 그러한 감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 여인이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남자도 병들어가고 있었다
일 년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 일 년은 너무 기일었다

그녀는 다시 술집에 전락되었다가 죽었다

한 여인의 죽음의 門은
西部 한복판
돌막 몇 개 뚜렷한
어느 平野로 열리고

주인 없는
馬는 엉금엉금 가고 있었다

그 남잔 샤이안 族이

15) 김학민, 앞의 책, 43면.

그녀는 牧師가 물어 주었다.

- <서부의 여인> 전문

이 시에는 ‘술집’이라는 장소가 등장한다. ‘술’에 대한 인간의 강한 애착은 ‘술’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술집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 시는 허름한 술집과 그 속에서 궂은일을 하는 사연 많은 여인의 사랑과 죽음을 통해 인간 존재의 허무를 표현했다.

<서부의 여인>에서 ‘여인’은 ‘병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후에 여인이 술집에 다시 전락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인은 술집에 일을 하면서 얻은 병일 가능성이 크다. 여인의 남자 역시 병들어 가는데 그것은 가난한 삶을 연명하는 두 사람이 생활의 윤택을 꿈꿀 수 없음으로 해서 발생한 마음의 병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결국 현실의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1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술집에 전락”되었다가 죽게 된다. 여인이 죽었고 여인의 남자 역시 죽었다.

이 시에서 ‘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공간으로 설정된 ‘술집’이 가지는 비극적 정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술집에 전락되는 상황은 다른 삶의 조건을 무화시키고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한 여인의 한 많은 삶을 연상시킨다. 다음은 그녀가 죽음 이후에야 넓은 ‘평야’로 자유롭게 나아간다는 점이다. ‘술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이미지와 같이 험소하고 어두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죽음 이후에야 광활한 서부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죽음 이후 자유의 영혼은 “주인 없는” 말의 형상으로 ‘영금영금’ 간다. 현실의 삶이 존재론적으로 비극적일 때 집착은 사라지고 체념의 정서에 가 닿는다.¹⁶⁾ 두 사람은 각각 ‘샤이안 족’과 ‘목사’에 의해 묻힌다.¹⁷⁾

16)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박찬국 역, 아카넷, 2007, 31~32쪽.

17) 이에 대해 남진우는 “살아서 만나기로 한 이들은 죽어서도 한 쪽은 인디언이, 다른

죽음 이후에 얻은 자유로 두 사람은 최소한 영혼의 결합을 희망하겠지만 그것 역시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에 나타난 서부 여인의 죽음은 ‘술’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더욱 비극화 되었다.

갈 곳이 없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꺼비 한 마리가 맞은편으로 어기적빠기적 기어가고 있었다 연신 엉덩이를 들쭉거리며 기어가고 있었다 차량들은 적당한 시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수없는 차량 밑을 무사 돌파해가고 있으므로 재미있게 보였다.

.....

大型 연탄차 바퀴에 깔리는 순간의 擴散소리가 아스팔트길을 진동시켰다 비는 더욱 쏟아지고 있었다

무교동에 가서 소주 한 잔과 설농탕이 먹고 싶었다

- <두꺼비의 轢死> 전문

한 아낙과 어린 것을 안은 여인이 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나는 냉큼 손짓으로 인사하였다.

그들은 차츰 웃음을 짓고 있었다. 말뱃이 되었다.

그인 살아나야만 한다고 하였고 오래된 저혈압인데 친구분들과 술추렴하다가 쓰러졌다.

산소 호흡 마스크를 입에 댄 채 이들이 지나며 산소호흡기 사용료는 한

한쪽은 목사가 물어주었다는 데서 암시되듯이 저승에서도 만나지 못할 운명의 아이러니의 지배”라고 한 바 있다. 남진우, 『미적 근대성과 순간의 시학』, 소명출판, 2001, 219면.

시간에 오천 원이며 보증금은 삼만 원 들어 놓았다며

팔려고 내놓은 판자집이 팔리드래도 진료비 절반도 못 된다며, 살아나 주
기만 바란다고 하였다.

- <앞날을 향하여> 부분

<서부의 여인>에서는 ‘술’이 존재론적 비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면 <두꺼비의 역사>는 비극적 사건과 화자가 동화되는¹⁸⁾ 방식으로 슬픔
이 강화된다. “갈 곳이 없”는 나는 비가 내리는 도로에 ‘두꺼비’ 한 마리가
횡단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 두꺼비는 다행히 “무사 돌파해가고” 있어서
‘재미’있었다. 그러나 ‘大型 연탄차’에 깔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두꺼비가
깔리는 순간의 ‘확산소리’는 “아스팔트를 진동시”키고 비는 “더욱 쏟아지”
게 된다. 무사히 도로를 건너려는 두꺼비의 의지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장
면을 보여준 이 시는 그 순간을 포착한 나의 감정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빠르게 인지한다. “소주 한 잔과 설농탕”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한 생
명에 대한 숙연함의 표현이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두꺼비의 슬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감정의 표현이다. 또한 제사의식에 사용되었던 ‘술’이 ‘피’를
대신하여 사용된 것과 같이 두꺼비의 죽음을 애도하는 ‘술’을 마시는 행위
를 통해 제사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 제사가 망자(亡者)를 애도하고 다음
생의 평안을 기원하는 형식이라는 의미와 함께 자기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때 이 시 역시 자신의 존재론적 슬픔을 동일화한 두꺼비의 죽음
을 통해 자기정화의 의미를 표출하였다.

<앞날을 향하여>는 두 가지 대립되는 이미지를 통해 비극적 정서를 강
화한다. 병원에 입원한 ‘화자’와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병원에 있는
‘아낙’과의 친밀함은 오히려 비극적 정서를 강화한다. 중환자실에 쓰러져

18) 남진우는 이에 대해 “화자에게 두꺼비의 죽음은 자신의 분신의 죽음에 닮아난 것”
이라 했다. 남진우, 앞의 책, 211면.

있는 남편과 화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 있다. 병원이라는 생과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동시적 상황도 있지만 화자는 살아나서 ‘마실’을 다니고 있고, 병원비조차 제대로 댈 수 없는 처지의 ‘아낙’과 그녀의 남편은 처절하게 사투를 벌리고 있어서 이 둘은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또 하나의 대립적 이미지인 비극적 상황의 원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낙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은 “오래된 저혈압인데 친구들과 술추렴하다가 쓰러”진 상황이다. ‘오래된 저혈압’이라면 마땅히 건강을 위해 자신의 몸을 잘 보살펴야 하나 친구들과 ‘술추렴’을 했고 그로인해 ‘쓰러졌다’. 화자가 살아서 마실을 다닐 정도의 몸이 된 것과 오래된 저혈압을 앓고 있는 가난한 한 남자는 ‘술’ 때문에 지금의 비극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극적 상황의 원인은 통상 운명을 거스르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 ‘저혈압’과 ‘가난’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술’을 통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아낙의 남편은 가망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산소 호흡기를 떼어서는 안 된다고’ 화자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한다. 이 시에서 ‘술’은 이처럼 시의 비극적 정서를 강화하는 소재가 된다.

빗방울이 제법 굵어진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먼 산 너머 솟아오르는
 나의 永園을 바라보다가
 구멍가게에 기어들어가
 소주 한 병을 도둑질했다
 마누라한테 털미를 잡혔다
 주머니에 들어 있던 토근 몇 개와
 반쯤 남은 술병도 몰수당했다
 비는 왕창 쏟아지고
 몇 줄기 光彩와 함께

벼락이 친다

强打

連打

- <극형> 전문

또 죽음의 발동이 걸렸다

술 먹으면 죽는다는 지병이 악화 되었다 날짜 가는 줄 모르고 폭주를 계속
하다가 중환자실에 幽閉되었다 무시무시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린
다 고통스러워 한시바빠 죽기를 바랄 뿐이다.

희미한 전깃불도 자꾸만 고통스럽게 보이곤

했다

해괴한 팔짜이다 또 죽지 않았다

뭔가 그적거려 보았자 아무 이치도 없는

- <죽음을 향하여> 전문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김종삼에게 '술'에 대한 애착은 병임과 동시에 순간이지만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뜻한다. <극형>에서 화자는 삶에 대해 자포자기한 상황에 놓여있다. 유일한 자기 위안인 '술'을 얻지만 그것 역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며 '마누라'에게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만다. 화자는 이제 '벼락'을 보며 그 벼락이 자신을 향해 내리는 '극형'이라 여긴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화자의 망연자실한 상황과 '영원'의 상반된 이미지는 그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왔는지를 알려 준다. 화자는 '소주'를 도둑질하여 현실적 고통에서 위안을 찾는다.¹⁹⁾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행복이 아니다. 여기에 현실 도피의 의미를 지닌 '토큰'과 일순간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주'

19) 엄경희는 "화자가 몸담고 있는 공간이 '목마름'의 공간이라면 '영원'은 생명수가 넘치는 '물'의 공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나'는 '물'이 변용된 물질 '소주'를 도둑질한다"고 했다. 엄경희, 『빙벽의 언어』, 새움, 2002, 14면.

마저 강제로 빼앗기고 만다. 이 시에서 ‘마누라’는 현실 혹은 세계의 한계상황을 의미하고 볼 때 시적화자는 ‘영원’을 바라지만 결국 폭력적인 현실에 주저앉고 마는 비극적 인간형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극형’이며 비극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것이라 여긴다.

<죽음을 향하여>는 “술 먹으면 죽는다는 지병이 악화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 ‘죽기’를 바라지만 이번에도 또 죽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이치’도 없는 글을 끄적거리고 있다. 그가 왜 그렇게 지독한 ‘지병’ 속에서도 “날짜 가는 줄 모르고 폭주를 계속”하게 되었는지는 마지막 행에서 “이치도 없는” 무엇인가를 끄적이고 있는 실존적인 인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생의 이치를 찾아 글을 쓰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다. 중환자실에 누워 “무시무시한 육신의 고통” 속에 “한시바빠 죽기를 바랄 뿐”인 화자는 ‘전깃불’ 조차도 ‘고통스럽게’ 보인다고 토로한다. 여기서 ‘술’은 인간의 비극적 일상을 한순간 벗어나 보려는 의도의 산물이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본연의 상황이 ‘고통’이다. 여기서 화자는 현실적으로 ‘술’을 찾아서는 안 되지만 ‘폭주’까지 하게 된다. 피하고 싶은 고통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술’이지만 순간의 해방을 위해 자해 행위는 계속된다. 피할 수 없는 실존의 ‘고통’을 ‘술’에 의지해 해방되어 보려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은 배가된다. 이럴 때 ‘술’은 비극적 현실을 보다 비극적인 현실로 대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김종삼에게서 ‘술’은 현실의 비극성을 한층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술은 비극적 현실을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산물로 제시되지만 근본적인 치유와는 거리가 멀다. 그의 시 속의 ‘술’은 비극적 현실을 보다 더 비극적이게 만드는 효과와 함께 비극적 현실의 문제에 대면하려 하기도 하는 체념을 통해 회피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비극성은 오히려 강화된다.

Ⅲ. 교유(交遊)의 매개물

전통적으로 ‘술’은 먼 곳에서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왔을 때 대접하는 음식의 하나로 여겨졌다. 서양의 ‘술’이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표출된다면 동양의 술 문화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하나의 ‘음식’으로 여겨졌다. 그런 까닭에 음식을 나누어 먹듯이 술 역시 하나의 음식으로서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그것은 술이 초기에 제사에 이용된 동물의 ‘피’를 대신하여 사용되었고 제사에 사용된 음식은 함께 제사를 지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는 측면에서 동·서양이 공통된다. 특히 동양의 문화에서 ‘술’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물로서 기능한다.

나는 술꾼이다 낡은 城郭 寶座에 앉아 있다 正常이다 快晴하다

J·S BACH도 앉아 있었다

獅子 몇놈이 올라왔다 또 영금 영금 올라왔다 제일 큰 놈의 하품, 모두 따분한 가운데 헤어졌다

—

나는 다시 死體이다 첼로의 PABLO CASALS

- <첼로의 PABLO CASALS> 전문

김종삼의 삶과 시에서 ‘음악’은 중요한 요소다. 이 시는 그가 음악과 술을 좋아했다는 전기적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시편이라 추측된다.²⁰⁾ 이 시에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음악가 두 사람이 등장한다. ‘J·S

20) 권명옥은 “김종삼 시에서 환영의 출몰은 일반적으로 음악의 매개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작품은 예외적으로 음악과 술이 함께 매개하며, 그것도 술이 주도하고 있는 보기 드문 예”라고 했다. 본 논문은 시적 정서를 기준으로 ‘교유’의 상황으로 이

BACH로 표기된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20세기 첼로의 거장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파블로 카잘스’가 그들이다. 김종삼 자신이 좋아했던 음악가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시적화자로 표출된 ‘나’는 ‘술꾼’이다. 여기서 ‘술꾼’인 자신은 낡았지만 ‘성곽’의 ‘보좌’에 앉아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슬프거나 비극적인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기고만장한 최고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화자는 편안하고 ‘쾌청’한 자리에 앉아 ‘바흐’의 음악을 듣고 있다. 그곳에 ‘사자’ ‘멧놈’이 나타나서는 ‘바흐’의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품’을 하고 ‘따분’해 하면서 이들은 헤어진다. 이후 나는 파블로 카잘스의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사체’가 된다. ‘사체’는 ‘죽음 몸’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죽음’은 비극적 이미지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주 감동적인 음악을 들었을 때 통상 “그 음악 죽인다”라고 할 때의 ‘죽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바흐의 천재성은 파블로 카잘스가 그의 음악을 첼로 연주로 복원했을 때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신이 ‘술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흐와 파블로 카잘스의 음악과 가장 이상적으로 만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는 음악가들과 ‘술’을 통해 만나고 교류한다.

金素月 詞兄

생각나는 곳은

미개밭 往十里

蘭草 두어서넛 풍기던 삼칸초옥 下宿에다 해질 무렵 탁배기 집이외다

또는 흥정은 드물었으나 손때가 묻어 정다웠던 대들보가 있던 雜貨商집이외다.

- <장편> 전문

시를 보았다. ‘환영’과 비슷한 ‘환상’의 상황은 현실의 비극적 인식을 전제해야한다고 보아 4장에서 다루었다. 권명옥, 『적막과 환영』, 권명옥 편, 『김종삼 전집』, 나남출판, 2005, 358면.

바닷가 한낮이 가고 있었다
 바다는 넓다고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 참 즐기고 있지만
 철서덕 또 철서덕 바위에 부딪친다

텐트로 돌아갈 시간이 아득하다
 全鳳健이가 쓴
 마가로니 웨스턴이 큰 덩어리 그림자들이 두레박 줄이
 한가하다
 나는 쏘주는 먹을 줄 알지만
 하모니카는 불 줄 모른다

- <바다> 전문

<장편>이라는 제목의 시는 김종삼 전집에 여섯 편 등장한다. 장석주 편
 의 『김종삼 전집』(청하, 1988)에는 번호가 붙은 네 편의 <장편>과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두 편의 <장편>이 있다. 이후 권명옥 편 의 『김종삼 전집』
 (나남출판, 2005)에는 여기에 두 편의 <장편>이 추가되었다. 이 시는 권명
 옥 편 의 전집에 추가된 시다. 위 시는 시인 김소월을 대상으로 그의 시 ‘왕
 십리’와 연관한 이미지를 드러낸 비교적 짧은 시다. 김소월의 <왕십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두 장소는 ‘타배기 집’과 ‘잡화상집’이다. 김소월의 시
 <왕십리>가 이별의 슬픔을 ‘비’를 통해 노래한 절창이라 한다면 그 시의
 배경이 되는 ‘왕십리’는 ‘미개발’ 상태여야 더 절절한 감정이 표현될 것은
 자명하다. ‘난초’가 몇 포기 자라고 ‘삼칸초옥’과 ‘손때’가 묻어 있는 두 장소
 야말로 김소월을 생각나게 만드는 좋은 장소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타배기
 집’은 그의 시에 등장하는 ‘술’과 관련된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시어가 된
 다. 양주나 소주가 아닌 전통의 발효주인 막걸리는 김소월의 <왕십리>가
 전통적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술이 된다. 전통주인

막걸리를 파는 ‘집’에서 그는 김소월과 만나고 김소월의 시 <왕십리>를 생각한다.

<바다>는 ‘전봉건’의 <마카로니 웨스턴> 연작을 생각하며 쓴 시다. ‘마카로니 웨스턴’은 서부영화의 위선적 개척정신에 반기를 들고 오직 복수와 돈을 위해 싸우는 잔혹성을 그린 이탈리아식 서부영화를 말한다.²¹⁾ 이 용어를 차용한 전봉건의 시는 상대적으로 궁핍화되었던 메마른 70년대적 삶을 충격적으로 그려냈다.²²⁾ 김종삼은 그러한 전봉건의 시를 생각하면서 서부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하모니카’를 떠올린다. 화자가 볼 수 없는 ‘하모니카’와는 대조적으로 ‘쏘주’는 자신있게 먹을 수 있다. 화자는 지금 ‘바다’에서 처음으로 ‘첼서덕’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 참 즐기”는 바다는 그에게 ‘텐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바다를 즐기고 있는 그에게 전봉건의 <마카로니 웨스턴>이 떠오른 것은 ‘한가하다’는 느낌이 영화의 상황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돈과 복수를 위해 아귀다툼하는 현장과 “큰 덩어리의 그림자”와 “두레박 줄”은 한가함과 분주함의 극점에 있다. 이들이 모두 한가하다면 화자가 느끼는 한가함은 더욱 배가된다. 서부영화의 한 대목을 그린 전봉건의 시편을 떠올리면서 그의 상상력은 ‘하모니카’와 ‘쏘주’가 서로 상반된다는 생각에 이른다. 이 시는 ‘술’을 통해 친구 전봉건과 만나고 한가로이 바다에서 놀고 있는 상황을 만든다. 그의 시 중 또 다른 <장편> 역시 “고운 여자 친구가 살고 있었다/부근엔 오두막 구멍가게 하나/있어 그 친구랑 코카콜라랑 소주를/즐길 때도 있었다”라고 하여 친구와 교유하는 수단으로서 ‘술’을 이용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일에 쫓기던 화자가 오랜만에 여자를 찾아가보았지만 그 여자는 “어떤 사람과 동거 중”이었다. 이 시에는 ‘세자르 프랑크’라는 프랑스 작곡가

21) 연동원, 『영화 대 역사』, 학문사, 2009, 116면.

22) 최동호, 『실존하는 삶의 역사성』, 전봉건, 『아지랭이 그리고 아픔』, 해원출판사, 1987, 324면.

가 등장하는데 그의 곡들은 대체로 잔잔하다가 걱정으로 흐르게 된다. 이 시 역시 친구에 대한 마음이 걱정과 평온을 오가는 정서적 불완전성 속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스와니江가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스티븐 포스터의 허리춤에는 맥다 남은
술병이 매달리어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앞서 가고 있었다

영원한 江가 스와니
그리운
스티븐

- <스와니강> 전문

무척이나 먼

언제나 먼

스티븐 포스터의 나라를 찾아가 보았다

조그마한 통나무집들과
초목들도 정답다 애뜻하다
스티븐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같이 한 잔 하려고

- <꿈의 나라> 전문

이 두 편의 시는 미국 민요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작곡가 스티븐 포스터(1826~1864)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티븐의 삶은 이 시를 해석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남북전쟁 전에 <켄터키 옛집>, <금발의 제니>, <올드 블랙 조> 등의 작품이 유행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 그러나 남북전쟁(1861~1865) 이후 그는 급격히 인기가 떨어지고 여기에 가정생활의 파탄까지 겪다가 뉴욕에서 빈곤과 괴로움 속에 3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그가 남긴 <스와니강>은 멀리 떠나온 고향과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배어 있는 그의 전기적 노래다. 김종삼은 그의 비극적 삶을 ‘술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불러낸다. ‘술병’을 ‘허리춤에’ 매달고 있는 스티븐은 ‘어두워지자’ “앞서 가고 있”다. 그가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은 화자인 자신이 뒤를 따른다는 의미도 된다. ‘술병’은 이 시가 가진 비극적 정서와 환기함과 동시에 스티븐과 함께 지근거리를 두고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상상하게 만든다. 스티븐의 비극적 죽음과 화자의 거리는 멀지 않다. 더군다나 화자는 스티븐이 ‘그리운’ 존재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 죽은 스티븐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화자의 비극적 정서는 바로 ‘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만나고 있다.

<꿈의 나라>는 <스와니강>에 표출된 비극적 정서가 시 이면에서 표출된다. 화자는 스티븐 포스터의 나라 ‘미국’을 찾아간다. 그곳은 ‘무척’이나 멀고 ‘언제나’ 먼 나라다. 그렇게 먼 나라를 찾아간 화자는 거기서 ‘통나무 집’과 ‘초목’을 발견한다. 이들은 ‘정답’고 ‘에뿔’하게 스티븐을 찾고 있다. ‘통나무’와 ‘초목’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이유는 그와 “한 잔 하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시는 자연을 의인화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의인화의 방법을 차용했다. 그러나 스티븐의 노래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소재들은 그가 생의 마지막을 뉴욕에서 쓸쓸히 죽었다는 점과 상반된 이미지를 표출하면서 비극적 정서를 유발한다. 그가 남겨놓은 자연물들과 끝내 함께하지 못한 스티븐의 삶을 오히려 그의 노래 속 소재들이 위로하는 역발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면적인 정서와 배면에 깔린 정서를 함께 연결하는 중요한 소재로 ‘술’은 기능하고 있다. 이것 역시 앞서 제시한 것과 같

이 '술'이 교유의 수단이 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公告

오늘 講師陣

음악 部門

모리스 라벨

미술 部門

폴 세잔느

시 部門

에즈라 파운드

모두

缺講

金冠植, 쌍놈의새끼들이라고 소리지름, 特參한 막걸리를 먹음. 教室內에 쌓인 두터운 먼지가 다정스러움.

金素月

金洙暎 休學屆

全鳳來

金宗三 한 귀퉁이에 서서 조심스럽게 소주를 나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五번을 기다리고 있음.

校舍.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에 있음.

- <시인학교> 전문

김종삼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은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이 시는 '공고문'의 형식을 빌려와 한 편의 시를 완성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이 시는

전반부에 그가 좋아한 음악가, 미술가, 외국 시인을 제시했고 후반부에 한국 시인들을 언급했다. 먼저 전반부에서 ‘모리스 라벨’과 ‘폴 세잔느’와 ‘에즈라 파운드’는 모두 ‘결강’을 했으며 ‘김관식’은 이들의 ‘결강’에 대해 ‘짙놈 의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른다. 김관식은 ‘특참’한 ‘먹걸리’를 마시고는 교실의 ‘먼지’조차 ‘다정스’럽게 느낀다. 후반부에서 ‘김소월’과 ‘김수영’은 ‘휴 학계’를 냈고, ‘전봉래’와 ‘김종삼’은 ‘소주’를 마신다. 이들은 바흐의 ‘브란덴 브르그 협주곡’을 ‘기다리고’ 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세 명으로 ‘김관식’과 ‘전봉래’와 ‘김종삼’이다. ‘술’과 관련한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는 ‘김관식’과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 ‘전봉래’의 유서에 나오는 ‘바흐’의 음악은 이들과 ‘김종삼’이 함께 술을 마시거나 혼자서 마시지만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교유의 소재로 ‘술’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 <시인학교>의 ‘교사’가 ‘레바논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낙원으로 가야만 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으로 ‘죽음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행복한 이미지의 사후 세계를 뜻한다.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사후 세계이고 이들과 교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는 ‘술’이라는 점에서 ‘술’은 기능은 교유의 소재가 된다.

김종삼의 시에서 ‘술’은 타인과 만나고 담화하는 교유의 몫을 감당하는 소재로 나타난다. ‘교유’를 위한 술을 소재로 할 경우 그 시들은 대부분 김종삼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 시인, 화가 등의 예술가들일 경우 많다. 이들과 교유하고 싶은 욕망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술’을 통해 이들과 만나고 동일시화 하여 비극적 삶을 위안 받는다. 김종삼은 ‘술’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부조화를 극복하려하고 ‘술’을 통해 화해의 공간을 꿈꾼다.

IV. 환상적 공간으로의 이동

아처 텅에 의하면 술은 석기시대부터 만들어졌으며 처음 만들어진 술은 발효주로 꿀로 빚은 하이드로멜(hydromel)이었다. 술은 초기 종교의식을 하는 제사장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사의식이 민중의 생활 속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행사에 현수되었다. 제사를 지내던 초기에 제물은 사람이었지만 이후 동물로 대신하게 되었고 이 때 동물의 피는 언제나 신비스러운 의미를 지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의식의 '피' 역시 '술'로 대체된다. 제사의식에서 시작된 술은 피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신성한 존재로 상징된다.²³⁾

‘술’은 김종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물로서 오래전부터 기능했다. 그의 비극적 삶과 함께 했던 술은 세계를 초월하여 자아의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꿈꾸는 하나의 제사 음식과 같은 것이었다.

오십평생 단칸 셋방뿐이다

怪石 옆에 앉아 있었다

몇 잔의 高粱酒와 몇 조각의 호떡을 먹어치웠기 때문일까

따분하다

음악의 對位法처럼 彫刻이 서서히 하늘에서 아무 기척이 없는 어느 古家
뜨락에 내리고 있다 푸드득 소리에 놀라 깬다

새가

난다

- <산> 전문

23) 피에르 푸케·마르틴 드 보르드, 『술의 역사』, 정승희 역, 한길사, 2000, 14~15면.

나는 덕지 덕지한 늙은
 아마추어 시인이다.
 조그마치라도
 덕지 덕지함을 탈피해 보자.
 그 골짜기로 가 보자.
 앉기 좋은 그 바위에 또 앉아 보자.
 두홉들이 소주 반만 먹자. 반은 버리자.

- <오늘> 부분

이 시는 1연과 2연의 내용에 연관성이 매우 낮다. 1연에서는 “오십평생 단칸 셋방뽀”인 현실을 상기하며 이상하게 생긴 돌 위에 앉아서 ‘고량주’와 ‘호떡’을 먹고는 ‘따분’해 진다. 김종삼의 시에 다수 등장하는 세계의 비극적 인식이 재현된다. 2연은 ‘조각’이 ‘하늘’에서 ‘고가’ ‘뜨락’에 내리고 이로 인하여 ‘푸드득’ 날아가는 ‘새’소리에 화자는 깨어난다. 얼핏 잠이 들었던 화자가 새 소리에 놀라 깬다는 일상적인 내용이다. 여기서 ‘조각’은 높은 음에서 내려오는 음악의 음표와 같은 ‘새’의 모양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새가 “음악의 대위법처럼” 서서히 하늘에서 ‘기척’도 없는 고가 뜨락에 내린다는 표현은 현실감을 배제한 환상적 표현이다. 1연과 2연을 이어주는 것은 ‘고량주’다. ‘술’과 함께 ‘호떡’을 먹은 화자는 ‘따분하다’고 토로한다. 이상하게 생긴 돌 위에 앉아 있지만 “몇 잔의 고량주”를 마신 화자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 잠은 불편한 잠자리 때문에 깊이 빠져들지 못한다. 더군다나 하늘에서 새떼들은 조용한 뜨락으로 내려오고 화자를 발견하고는 ‘푸드득’ 소리를 내면서 날아오른다. 이 시의 제목이 ‘산’인 것은 새의 움직임이 포물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음악으로 그려진 ‘새’의 비상을 제목으로 썼다. 김종삼은 ‘술’을 매개로 하여 ‘새’처럼 ‘고가’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에게는 단칸 셋방밖에 없고 ‘새’들은 음표처럼 자유롭게 ‘고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술’ 때문이다.

이 시와 대조적인 의미를 보인 시가 <오늘>이다. <오늘>에는 “덕지덕지한 늙은 아마추어 시인”인 화자가 그 “덕지덕지함을 탈피해 보”려고 ‘골짜기’로 들어간다. 거기서 “얹기 좋은 그 바위에 또 얹”으려 한다. 여기서 화자는 “두릅들이 소주 반만 먹자. 반은 버리자”고 한다. 삶의 “덕지덕지함을 탈피”하려고 들어간 ‘골짜기’는 자신의 내면으로 향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거기에서 ‘술’은 이성적인 자기반성을 방해하는 물질이 된다. 더군다나 <산>에서는 ‘괴석’에 얹아 있지만 그는 “얹기 좋은 그 바위”에 얹아 있다. 자신을 반성하는 자리에서 ‘술’은 적당히 마실 필요가 있다. 그에게 ‘술’은 현실을 냉철하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소재로 남는다. 이 지점이 <산>에서 ‘고량주’가 했던 역할과 같다. 덕지덕지한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돌파구는 ‘술’이 된다.

베토벤을 따르던 한 소년이 있었지
 그 소년과 산책을 하다가 어느 점포를 기웃거리다가
 맥주 몇 모금씩을 얻어 마셨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킁킁거렸지
 우리는 맥주를 마시긴 마셨지 하면서 킁킁거렸지
 그는 田園交響曲을 쓰고 있을 때이다.
 귀가 멀어져
 새들의 지저귐도
 듣지 못할 때이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

- <실기> 전문

이 시는 “베토벤을 따르던 한 소년”과 시적화자와 ‘베토벤’ 이 세 사람이

함께 혼재되어 난해하면서 환상적인 시적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소년’과 나는 ‘산책’을 하다가 ‘맥주’를 조금 마신다. ‘맥주’를 마시고 ‘점포’에서 ‘깍깍거리는 사이 ‘전원교향곡’을 쓰는 ‘베토벤’이 등장한다. 베토벤의 등장과 맥주를 마시는 상황이 불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소년’과 ‘그’와 ‘베토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5행의 ‘깍깍거렸지’와 6행의 시작 ‘그는’ 사이의 시적 간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 역시 ‘맥주’를 마셨기 때문이다.²⁴⁾ “마시긴 마셨지 하면서 깍깍거”린 것은 ‘소년’과 화자인 ‘우리’가 ‘맥주’를 취하도록 마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취하게 술을 마신 화자는 이후 무의식적 세계에서 ‘베토벤’을 연상하게 된다. 화자는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깍깍거’리며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베토벤은 “귀가 멀어져” “듣지 못할 때”라는 것을 이 시의 화자는 인식하게 된다. ‘소년’과 화자는 맥주를 마시기 전에 ‘산책’을 했고 그들은 “새들의 지저귐”을 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위를 ‘베토벤’은 하지 못한다. 극단적인 대칭을 이루며 비극적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이 시가 슬픈 정서에 가 닿지 않는 것은 ‘베토벤’이 “전원교향곡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베토벤’을 따르는 ‘소년’과 함께 ‘술’을 마신 화자는 베토벤이 만든 ‘전원교향곡’을 떠올리고서 오히려 환상적으로 전이된다.

방대한

공해 속을 걷자

술 없는

24) 황동규는 이와 관련하여 ‘잔상의 미학’을 주장한다. 꼭 있어야 할 자리의 시어를 생략하고 앞에서 제시된 감각의 관성을 이용한 것이 잔상의 효과라는 것인데 이 시에 비약과 생략을 통한 잔상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황동규, 『잔상의 미학』,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44면.

황야를 다시 걷자

- <걷자> 전문

이 세상 모두가 부드롭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랜만에 사마시는
 부드러운 맥주의 거품처럼
 高電壓 地帶에서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나서처럼
 누구나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 무제²⁵⁾ 부분

<걷자>는 ‘황야’를 걸어가는 ‘방랑자’의 노래다. 화자는 ‘공해’와 ‘황야’ 속을 걸어가자고 청유문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 시에서 “방대한 공해”와 “술 없는 황야”는 서로 대칭되는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다. ‘술’이 없는 세상은 ‘공해’와 ‘황야’로 여겨질 만큼 시에서 ‘술’은 중요하다. ‘술’은 ‘걷기’를 위해 목표로 두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포한다. ‘술’이 있다면 ‘공해’ 속이든 ‘황야’ 속이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술’을 찾지 못하고 있고 황폐한 공간은 ‘방대’하다. 이 시는 ‘공해’ 속에서 ‘황야’로 가는 상상력의 지점이 ‘술’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비극적 상황과 대비되는 상황을 ‘술’이라는 소재로 대치했다.

이 시에 나타난 ‘술’과 그 의미가 유사한 것이 <무제>이다. “이 세상 모두가 부드롭다면/얼마나 좋을까/오랜만에 사마시는/부드러운 맥주의 거품처럼”이라 했을 때 ‘맥주’는 ‘세상’의 ‘참상’들을 감쌀 수 있는 모성애적 사고를 뜻한다. “세상 모두가 부드”러울 수 있다면 지금의 부정적 세계는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 <걷자>와 같이 이 시에서도 도달할 수 없는 상황

25) 1985년 『문학사상』에 유고시 특집으로 제목 없이 게재된 작품.

을 쉽게 이루어 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은 부정적 현실을 벗어나서 환상의 세계로 진입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대변하는 소재가 된다.

술을 먹지 않았다
가파른 산을 올라가고 있었다
산과 하늘이 한 바퀴 쉬임게
뒤집혔다.

다른 산등성으로 바뀌어졌다.
뒤집힌 산등어린 구름을 뿜은 채 하늘 중턱에
있었다.

뉴스인 듯한 라디오가 들리다 말았다
드물게 심어진 잡초가 깔리어진 보리밭은
사방으로 펼쳐어져 하니 바람이 서서히 일었다.
한 사람이 앞장서 가고 있었다.

좀 가노라니까
낭떠러지 쪽으로
큰 유리로 만든 자그만 스카이 라운지가 비탈지었다.
言語에 지장을 일으키는
난쟁이 畫家 로트렉氏가
화를 내고 있었다.

- <샴뽕> 전문

<샴뽕>은 샴페인의 불어식 발음으로²⁶⁾ 비슷한 발음의 작품 <샴뽕>과

26) 허금주는 “이 샴뽕 혹은 샴뽕이라는 용어는 불어의 ‘champagne’ 즉 샴페인을 불어식 발음으로 표기한 듯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했다. 그의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 황동규는 “멋으로 썼다기보다는 환상으로 현실을 견디어 내려는 의지로 쓴 것으로 판단된

함께 김종삼이 ‘술’을 제목으로 붙인 작품 중 하나다. 이 시에 등장하는 ‘톨르즈 로트랙(1864~1901)’은 어린 시절 말에서 떨어져 난쟁이로 평생을 살았다. 그는 불구인 몸이었지만 경쾌하고 대담한 화풍으로 몰랭루즈의 술집과 광대와 무용수 등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는 37세의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언어에 지장을 일으키는” 사람은 비단 ‘로트랙씨’만이 아니라 현실과 늘 분리되었던 김종삼의 삶도 마찬가지다. “술을 먹지 않았다”고 했지만 술을 먹지 않고도 먹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은 시의 초반부에 나타난다. “다른 산등성이”에서 ‘잡초’와 ‘보리밭’과 ‘바람’이 그와 함께 한다. 이 상황도 잠시 ‘낭떠러지’ 쪽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로트랙’은 “화를 내고 있”다. 요절한 화가 ‘로트랙’을 만나는 것은 실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소통부재의 현실에서 불구의 몸으로 평생을 살았던 화가의 등장은 불협한 현실을 잊고 억압된 욕망을 해방하고 환상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김종삼의 시에 나타난 ‘술’은 비극적 현실을 내면화하고 이를 타개할 방편의 하나로 나타난다. 이 때 ‘술’은 단순히 현실을 벗어나려는 순간적인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문제적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강하다. 그의 시가 비극적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로 ‘술’은 작용했으며 ‘술’을 통해 환상의 세계로 진입했다. 환상은 단순히 현실 아닌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대한 재확인과 확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현실을 담보하게 된다.

다”고 했다. 허금주, 『김종삼 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1, 109면. 황동규, 『잔상의 미학』, 장석주 편, 앞의 책, 255~256면.

V. 결론

김종삼은 생의 후반부를 술과 함께 했다. 그것은 애초에 그가 가진 세계와 자아의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의도의 산물이었다. 본 연구는 술과 관련된 그의 시 20편을 대상으로 ‘술’이 그의 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속에 담긴 미학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김종삼의 시에서 ‘술’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김종삼에게서 ‘술’은 비극적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비극성이 강화되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술’을 통해 비극성이 강화될 때 시적 표현 방법은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김종삼의 시에서 ‘술’은 동일시되는 타인과 교유의 방법으로 기능한다. 교유를 위해 술을 소재로 할 때 그의 시에는 그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 시인, 화가 등의 예술가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는 ‘술’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부조화를 극복하려하지만 이에 실패하고 ‘술’을 통해 화해의 공간을 꿈꾼다. 셋째, 김종삼의 시에 나타난 ‘술’은 비극적 현실을 내면화하고 이를 타개할 방편의 하나로 표출된다. 이때 ‘술’은 단순히 현실을 벗어나려는 순간적인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문제적 현실을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로 ‘술’은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억압된 현실적 굴레에서 해방되고 환상의 세계로 진입했다.

김종삼의 시는 ‘술’을 통해 해석될 때 현실을 벗어난 유미의 시라는 평가와 단순히 순수시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현실과의 대립에 대한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진다. 그의 시 속의 파편화된 현실은 술을 통해 오히려 비극화되었고 사람들과 교유하며 환상의 세계에서 복원되기를 꿈꾸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권명옥 편, 『김종삼 전집』, 나남출판, 2005.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 단행본/논문

장석경, 『문명의 바다에 침몰하는 토끼』, 장석주 편, 『김종삼전집』, 청하, 1988.

김학민, 『태초에 술이 있었네』, 서해문집, 2012.

김 현, 『김종삼을 찾아서』,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김화순, 『김종삼 시 연구-연술구조와 수사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1.

남진우, 『미적 근대성과 순간의 시학』, 소명출판, 2001.

백은주, 『김종삼 시 연구-환상의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4.

송경호, 『김종삼 시 연구-죄의식과 죽음의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2007.

신지연, 『김종삼 시 연구-연술 주체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0.

엄경희, 『빙벽의 언어』, 새움, 2002.

연동원, 『영화 대 역사』, 학문사, 2009.

윤석우, 『음주시에 나타난 중국시인의 정신세계』, 연세대 박사논문, 2004, 4~7면

이경수, 『부정의 시학』,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최동호, 『실존하는 삶의 역사성』, 전봉건, 『아지랭이 그리고 아픔』, 해원출판사, 1987, 324면.

최 학, 『배갈을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 새로운사람들, 2010.

한이각, 『김종삼 시 연구』, 서울여대 박사논문, 1995.

허금주, 『김종삼 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1, 109면/255~256면.

황동규, 『잔상의 미학』, 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박찬국 역, 아카넷, 2007.

피에르 푸케·마르틴 드 보르드, 『술의 역사』, 정승희 역, 한길사,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Patterns of "Alcohol" in the Poems of Kim Jong-Sam

Son Min-dal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atterns of "alcohol" in the poems of Kim Jong-sam and find their aesthetic meanings. Kim was accompanied by alcohol during the latter half of his life.

In his poems, "alcohol" has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even though he tried to escape from the tragic reality through "alcohol," tragedy ended up being further reinforced because of impossible fundamental healing. When tragedy was further reinforced through "alcohol," the poet would employ two contrasting images or replace alcohol with a device to depict his biographic life for poetic expressions. Secondly, "alcohol" is manifested in its own ways of harmony and social intercourse in his poems. When he wrote about alcohol for social intercourse, his poems would mostly be about artists he had affection for including musicians, poets, and painters. Finally, "alcohol" is used as a tool for Kim to internalize the tragic reality and break out of it in his poems. In such a case, "alcohol" is not a temporary means of pleasure to simply escape from reality, but the poet's mode of expression to show a new world of possibilities beyond the problematic reality.

When interpreted through "alcohol," Kim's poems are the poems of aesthetics that broke out of reality and the results of his active confrontation against reality beyond the mere category of pure poetry.

Key words : Kim Jong-sam, alcohol, ego, world, tragedy, harmony, fantasy, reality.

손민달

소속 : 우송대학교 글로벌뷰얼디그리학부 초빙교수

주소 : (300-718)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국제교육센터 208호

전화번호 : (직장)042-629-6623 (휴대전화)011-897-8397

전자우편 : smindal@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7월 17일 투고되어
2012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됨.

